

통계조작과 ‘분식회계 거절’



신 세 철

쉬운 경제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성행한 포퓰리즘과 전체 고용의 1/4이 될 정도로 공무원이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확대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려다가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면서 경제도 움츠러들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동 기관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그리스인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여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당시 그리스는 EU 국가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아 구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재정적자 통계는 매우 중요한 잣대였다.

초대 통계청장 게오르기우는 2009년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국내총생산(GDP)의 13.4%보다 늘어난 15.8%로 사실 그대로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통계의 진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엘스타트

(ELSTAT)도 게오르기우가 작성한 통계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그리스의 유력 인사들이 재정 적자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하였다. 그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를 짓고 체포되었다며 황당해 했다. 후진국에서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통계 책임자들은 자리보전이 어렵다는 말인가?

눈앞의 국가이익을 위해 가짜통계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단합시켜야 옳은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아닌 데도 상대를 속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국가 간 신뢰 구축은 상상할 수 없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그리스는 EU로부터 수차례의 구제 금융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실업률은 2020년 유럽 내 최고 수준으로 18%를 넘어섰다. IMF는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가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년 대비 -9.5% 역성장 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그리스의 어려움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거액의 국가채무에서 비롯되었다. 통계조작이 없었다면 빚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상환도 빨라졌을 게다. 개인이나 기업도 억지로 부채 상환능력을 부풀리다가는 자칫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열심히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가짜뉴스, 가짜여론이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적 판단을 왜곡시키듯이 통계조작은 나침판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먼 바다를 향해하려는 짓거리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통계조작이 심해지면 경제적, 정치적 판단을 그르쳐 나라살림은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통계조작은 고대사회에서 절대자인 제사장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주술행위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나라에서 최근 불거진 ‘통계 마사지’ 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칼럼니스트

마가렛 대처가 이정식 노동장관에게 둔 훈수



김 지 수

원 승 일
(정책사회부)

“법이 폭도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지난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은 고용법까지 개정해 투표 없는 파업을 불법화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성 노조였던 영국 탄광 노조는 끝내 백기를 들었다. 탄광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처 수상의 강경 대응은 지난했던 ‘영국병’을 고치는 약이 됐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접고 노동자들이 복귀한 것도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 발동이 계기가 됐다.

영국과 달리,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단기 처방에 불과해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지는 못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시설 파업을 이어갔다.

최근 건설 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부정이 잇따르자 정부는 노조에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조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율과 책임’이다. 노조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게 하는 게 맞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율은 방임이라서다.

대처 수상은 지난 80년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제한을 시작으로 노조대표 선출과 파업 결정시 비밀투표를 의무화했다. 이

어 노조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했고, 노동자의 노조 비가입 보장 등 초강경 수를 뒀다. 그렇게 강성 노조와 싸웠고, 불법 파업을 줄여갔다.

이정식 장관도 이제 우리 노조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기득권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부 노조 간부의 자녀가 아닌 노동자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조가 변해야한다고 말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그에게 노동수장의 자리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무와 다름없다.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은 강성 노조에 강한 정부로 맞섰다. 철의 남자 이정식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이 기득권 노조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자율을 논하기에 노조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w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운명을 얘기할 때 속명을 남길 수 없다. 48년생 불운의 요소는 게으름에 있으니 집안분위기를 바꾸자. 6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 마음먹기 나름. 72년생 약점은 노력으로 해결. 84년생 신념도 실천적 요소가 따라야.



소

37년생 거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49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인생이 허무하고 마음이 쓸쓸. 73년생 의도하여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온다. 85년생 고쳐 쓸 수 없으면 버릴 수밖에.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하는 일도 순조롭다. 50년생 인생에는 선택과 관계없이 필연적 요소가 있다. 62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진심. 74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8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토끼

3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하라. 51년생 내가 먼저 민아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63년생 물을 무서워해서는 수영선수가 될 수 없다. 75년생 광기와 천재의 차이는 성공으로 측정. 87년생 팔자는 속일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용

40년생 포기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 52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64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76년생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다. 88년생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뱀

41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53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65년생 지출을 줄이는 노력에 의해 재물의 늘어남이 항상. 77년생 근래에 없던 즐거운 일이 생긴다. 89년생 포기가 생각날 때가 성공이 눈앞에 온 것.



말

42년생 목소리로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연유인. 54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6년생 자식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8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90년생 건강을 위해 주변 산책을.



고양이

43년생 관점을 바꾸면 큰 변화가 있다. 55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7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9년생 굴러다니는 돌도 다 쓸모가 있다. 91년생 좋은 안상으로 생활의 길흉이 달라지니 거울을.



원숭이

44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5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 68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빛날 수 없다. 80년생 어려운 일도 자신감으로 시작. 92년생 양보가 좋은 운세를 부른다.



닭

45년생 관참은지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 5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음. 69년생 확실한 복수는 상대를 완벽히 있어 주는 것. 81년생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93년생 시험전 새벽기도를 잠시 해보는 날.



돼지

46년생 일종독자는 아니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58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니지. 70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 82년생 이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 재계약을 하는 것도. 94년생 시댁사람과 갈등이 생기니 주의.



돼지

47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9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7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3년생 익숙한 일도 가 법게 보지 마라. 95년생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는 마음으로.

김상회의四季

웃이 날개라는데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 것이다. 오늘날 명품의 대명사 시초를 이룬 것이 샤넬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한 때 샤넬향수가 엄청나게 인기였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의류 디자이너였던 코코샤넬이 의상에서 유명해지자 그 다음에 런칭 한것이 향수였다. 지금은 의류, 향수, 화장품 할 것 없이 전 세계 한 가닥 한다는 멋쟁이들의 ‘머스트 잇템’이 되고 있다.

원래 의상 디자이너로 출발했던 코코샤넬은 “조라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웃을 기억한다. 그러나 흠 잡을 데 없이 웃을 입으면 사람들은 기억한다.” 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 속담에 비추어 보면 ‘웃이 날개’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웃에 따라 같은 사람도 주는 느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컴퓨터공학자는 항상 정장 슈트를 차려입고 출근한다고 한다. 그가 일하는 컴퓨터업계는 자유로운 창의성을 중시하는지라 편한 옷 심지어 파자마 차림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그는 생각하길 편한 차림으로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클래스 있게 일하고 싶어서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나름 수궁이 가기도 한다.

스스로도 편한 옷과 제대로 된 정장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니까 말이다. 코코 샤넬과 같은 대중 디자이너의 등장은 산업사회의 출현과 무방하지 않지만 코코 샤넬이 말한 조라한 웃이 비싼 옷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조라하지 않은 웃이라고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잘 갖춰 입은 웃이야말로 잘 입은 웃이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9			
5							8
		3				9	
	8			4			5
	7						3
	5			2			1
		7				1	
9							5
			2	8			

		4				1	
	1		9	4	8		3
8							5
7							3
		9				7	
3							1
9							4
	7		1	5	4		9
		6				5	

정답

7	6	2	8	1	2	9	8	9
9	2	9	7	2	8	8	1	6
8	8	1	9	6	9	2	7	2
6	1	7	2	2	8	9	9	8
9	8	8	1	9	6	2	2	7
2	9	2	8	7	9	6	8	1
1	9	6	9	8	7	8	2	2
8	7	8	2	9	2	1	6	9
2	2	9	6	8	1	7	9	8

2	2	9	6	8	8	9	7	1
8	6	9	7	9	1	8	2	2
7	1	8	2	9	2	9	8	6
1	7	6	9	2	8	9	9	8
2	9	2	1	8	8	6	9	7
8	9	8	9	6	7	1	2	2
9	2	7	8	1	9	2	6	8
9	8	2	8	7	6	2	1	9
6	8	1	2	2	9	7	8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